

학문적 모호성에 관한 고찰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김현민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A Study on Academic Ambiguity -Focusing on Pop and Classical Music-

Hyun-Min Kim

Department of Contemporary Music, Sungshin Women's University

요 약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은 크게 클래식 음악에 집중된 음악대학과 대중음악에 집중된 실용음악과가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학문의 영역에서 클래식 음악이 실용음악보다 우대되는 경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음악대학이라는 명칭은 클래식 음악에 의해 전용되어왔으며, 실용음악은 클래식 음악의 하위요소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3개 음악대학과 2개 실용음악과의 전공 커리큘럼을 나열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클래식 음악과 실용음악은 이론과 실기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이고 유기적인 음악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음악대학에서 가르치는 이론과 실기는 서양의 바로크와 고전시대에 구축된 조성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에 반해 실용음악과에서는 이론과 실기는 재즈를 바탕으로 한 현대 대중음악의 장르를 아우른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실용음악의 특수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들에게 불필요한 장르적 간극들과 편협성들을 해제하려는 것에 있다. 대중음악은 음악 소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음악은 교직이수 제도권 내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다. 클래식 음악에 비해 학문적인 가치도 저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용음악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연구하는 논문이다.

Abstract Music education is offer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f Korea. Usually, these institutions are largely divided into schools of music focusing on classical music and schools of applied music focusing on pop music. However, universities in Korea traditionally tend to prefer classical music as the field of study. The name, school of music, usually has been used exclusively for classical music. In contrast, applied music is regarded as a sub-field of classical music.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the common grounds and differences between cultural and applied music by listing the major curricula of three music and three applied music school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both classical and applied music education are omnidirectional and systematic and are based on inculcat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skills. However, they are different in content. For example, the theories and practical skills taught at a school of music are based on tonal music used in baroque and classical music of the West. On the other h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skills taught at a school of applied music are based on jazz and modern pop music. Based on these comparisons, this study proposes that awareness of the special expertise of applied music needs to be strengthened.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 genre gaps and intolerance unnecessary to the public. Although pop music has already accounted for most music consumption, applied music still has unfairness within the teaching profession completion system. Moreover, applied music is undervalued academically compared to classical music. Hence, this study also explored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perception of applied music.

Keywords : Music Education, European Classic Centrism, College of Music, Jazz Studies, Popular Music

*Corresponding Author : Hyun-Min Kim(Sungshin Univ.)

email: thursdayislands@gmail.com

Received November 11,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Revised November 29,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우리가 음악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데 수많은 다양한 맥락과 목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음악이라는 단어도 다양한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여흥과 재미를 위해 어떠한 노래를 직접 가창하는 행위 속에서의 음악은 오락의 용도를 가진다. 한편 타인이 수행한 노래와 퍼포먼스를 응시하며 감상하는 경우에 음악은 개인의 심신 안정과 정서적 감흥이라는 용도를 가진다.

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가변적이다. 때로는 주변 환경에 따라, 또는 개인의 사사로온 기분에 따라 변화되기도 하며, 시대와 사회환경, 지역, 심지어 정치적 여건에 따라 어떠한 특별한 경향들을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악풍, 스타일, 장르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각자의 음악양태는 가치론적으로 분명 동등하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음악의 양상은 더욱 다양하다. TV와 라디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등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매체 속에는 항상 음악이 사용되고 있으며, 게임과 영화에서도 영상 이미지를 매개하기 위해 음악이 사용된다. 심지어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SNS에서도 음악이 손쉽게 응용되는데, 디지털 장비와 모바일 기기의 대중적 확산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전문가와 아마추어라는 계층적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적 연출에 대한 기술력은 이미 일상화되어있으며, 거의 누구나 음악을 창출하거나 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음악을 단지 미감적으로 향유함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 활동, 창출 과정 전반을 누구나 서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일상적 영역에서 폭넓게 파생되는 다양한 음악 현상들을 현재의 학문적 시야가 얼마나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순수한 학문적 전통으로서의 음악은 현실 속에 놓여있는 음악과 별도의 존재방식을 택하여, 음악이라고 불리는 대상 중에서 유독 특정 장르만을 학문적으로 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음악학과 음악교육이 실용음악과 클래식 음악으로 이원화된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즉, 클래식 음악만을 음악의 대명사로 여겨온 오랜 전통 때문에,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클래식 음악은 대표성을 지닌 장르로, 실용음악은 음악의 하위요소로 치부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때로는 이러한 경향은 인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분

류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와 정책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음악이라는 개념을 어떠한 특정 장르만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음악학과 음악교육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문학과 영어학이 언뜻 같은 학문으로 여겨지지만 확연하게 다른 커리큘럼을 가진 것처럼, 기존의 클래식에 치중되어 있던 음악학과와 실용음악학과에서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음악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음악 관련 각종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클래식 음악과 실용음악의 학문적인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K-pop이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클래식과 실용음악의 전문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이상의 학과 체계 내의 음악학과 혹은 클래식 음악을 다루고 있는 음악 전공에서의 재즈 관련 교육에 대한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일상적으로 익숙히 접하고 있는 음악창작 기반과 환경, 그리고 이를 인식하고 수행하는 음악전공자 및 음악업무 종사자, 그리고 대중들에게 불필요한 장르적 간극들과 편협성들을 해제하려는 것에 있다.

2. 국내 음악학과와 실용음악 학과의

커리큘럼 분석

전술했듯이, 음악이라는 단어 속에 다양한 의미가 내재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등교육에서 음악관련학과가 대상으로 하는 전공과정의 장르적 폭은 상당히 좁은 영역에 매몰되어 있었다. 현재 대학과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은 클래식 음악과 실용음악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악대학이라 함은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한 작곡, 성악, 기악학과를 일컫는다. 국악과 또한 음악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용음악과는 음악대학과 별도의 학과로 개설되어 있거나 별도의 대학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본 고에서는 음악대학과 실용음악과의 전공과목들을 비교하여 각 분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문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음악대학의 경우 작곡, 성악, 기악으로 세분화된 전공에 따라 학사과정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본 고에서는 전공 공통과목을 위주로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학교마다 학사과정의 운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공과 관련된 핵심 과목들이 있는 각 대학 3, 4학년 위주로 커리큘럼을 발췌하였다.

Table 1. Common subjects of the Department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2020)[1]

Year	Courses
3rd year	History of Western Music 3
	History of Western Music 4
	Music Analysis 1
	Music Analysis 2
	Performance Workshop
	Elective Music Lessons
	Conducting 1
	Conducting 2
	Score Reading
4th year	Music Analysis 3
	Music Analysis 4
	Introduction to Acoustics of Music 1
	Introduction to Acoustics of Music 2
For teaching profession	Teaching of Music
	Materials and Methods in Music Education
	Logic and Expression in Music
Non-specified	Methods of Korean Traditional songs
	Practice of Performance and Production for Contemporary Music
	Overseas Field Study
	Vocal Score Reading
	Music Criticism
	Creative Production 1
	Creative Production 2
	Introduction to Live Sound Technology

Table 2. Common subjects of the Department of Music,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21)[2]

Year	Course
3rd year	Individual Major Practice 5
	Individual Major Practice 6
	Chamber Music 1
	Chamber Music 2
	Performance 5
	Performance 6
	History of Western Music 3
	History of Western Music 4
	Musical Analysis 1
	Musical Analysis 2
	Understanding of Music Therapy 1
	Understanding of Music Therapy 2
	Theories of Music Education
	Survey and Guidance of Textbooks in Music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year	Individual Major Practice 7
	Individual Major Practice 8
	Chamber Music 3
	Chamber Music 4
	Performance 7
	Performance 8
	Logic and Writing in Music

Table 3. Common subjects of the Department of Music, Pusan National University(2021)[3]

Year	Course
3rd year	Individual Major Practice 5
	Individual Major Practice 6
	Music Listening and Criticism 5
	Music Listening and Criticism 6
4th year	Individual Major Practice 7
	Individual Major Practice 8

Table 1, 2,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음악대학의 전공 공통과목들은 각 학교의 학사과정에 따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세 학교의 커리큘럼에는 공통적으로 서양음악사와 시창·청음(또는 솔페이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과목 이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음악 레슨과 연주 실기 과목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학과공통 과목은 이처럼 실기분야와 이론분야가 균형 있게 배열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음악학과의 목적중에 하나인 전문음악인 혹은 음악 관련 계통의 직업인 배출을 위한 직무능력은 어느 하나의 비중만으로는 인력양성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음악적 소질 및 재능과 그것을 발휘하거나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작품이나 연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의 상당한 훈련 과정들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커리큘럼에서 시창과 청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음악적 학습 과정에 대한 증빙은 명백히 기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선 악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창 및 청음·기보법을 전공 기초과목으로 반영한다.

음악이론에 있어서는 대위법 등 서양의 전통적인 화성학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음악대학에서 서양 음악사를 몇 학기에 걸쳐 중요하게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현재 국내 음악대학 커리큘럼이 서양의 공통관습시대 음악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은 이론적 분야와 실기적 분야의 구분이 명백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연주 과목은 전공실기를 제외한 부전공실기, 실내악, 합주, 앙상블, 오케스트라 등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지감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양 음악사와 대위법, 화성법과 같이 역사나 이론을 다루는 과목에서도 결국 해당 시대의 악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양식의 연주나 감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능력단위분야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서양 음악사에서 중점적으로 할애하는 유럽 17~19세기 양식은 화성학과 합주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대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은 관현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전공실기는 학생 자신의 전공입시생 당시에 선택되는 입시 레파토리에 해당하는 수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대부분은 17~19세기의 유럽시대이며, 20세기 이후에서는 상기된 유럽 양식이 교수 작곡가의 작품으로 선택된다. 뿐만 아니라 음악학 및 음악분석을 상술한 17~20세기 유럽 미국 작품의 인쇄 악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 또한 동시대 화성학의 이론적 토대에서 진행된다. 요컨대, 국악 분야를 제외한 교과목은 이론과 실기를 막론하고 대부분 근대 유럽 고전음악(이하 본문에서는 '클래식 음악')에 치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서울대의 경우 음악소프트웨어 실습,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 라이브음향기술 등 실용음악과의 일부 수업과 중첩되는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나, 이 과목들은 표준이수형태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4. Common subjects of the Contemporary Music Major, Sungshin Women's University(2021)[4]

Year	Courses
3rd year	Studio Recording and Mixing
	Electronic Composition for Visual Work and Sound Design
	Vocal Ensemble for Song Writing
	Recording Production
	Home Recording and Mixing
	Film Scoring and Orchestration
	Major Practical Course 5
	Studio Recording and Mixing
	Electronic Composition for Visual Work and Sound Design
	Concert Production
	Music Management
	Ban Ensemble for Live Session

4th year	Major Practical Course 7
	Music Management 2
	Song Camp 1
	Major Practical Course 8
	Song Camp 2

Table 5. Common subjects of the Contemporary Music Major, Chungwoon University (2021)[5]

Year	Courses
3rd year	Performance 3
	Performance 4
	Individual Major Study 5
	Individual Major Study 4
	New Media Music Analysis 1
	New Media Music Analysis 2
	Songwriting 1
	Songwriting 2
	Jazz Arranging 1
	Jazz Arranging 2
	Digital Recording 1
	Digital Recording 2
	Vocal Ensemble 1
	Vocal Ensemble 2
	Ensemble 3
	Ensemble 4
	Performance Master 1
	Performance Master 2
4th year	Musical and Acting Practice 1
	Musical and Acting Practice 2
	Improvisation and Vocal Scat 1
	Improvisation and Vocal Scat 2
	Individual Major Study 7
	Individual Major Study 8
	Portfolio 1
	Portfolio 2
	Percussion and Rhythm 1
	Percussion and Rhythm 2
	Electronic Sound Performing 1
	Electronic Sound Performing 2
	Music Promotion Technique 1
	Music Promotion Technique 2
	Recording Session
	Contemporary Music Arranging Techniques
	Capstone Design
	Ensemble 5
	Ensemble 6
	Modal Songwriting

Table 4, 5 에서 볼 수 있듯이 성신여대, 청운대의 실용음악과 커리큘럼도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부분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학교 모두 현대

음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신여대의 경우에는 ‘스튜디오 레코딩 및 믹싱’, ‘일렉트로닉 작곡’ 등의 현대음악의 실용적 측면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었고, 청운대학교의 경우에도 ‘뉴미디어 음악분석, 퍼포먼스 마스터, 일렉트로닉 사운드 퍼포먼스’ 등의 현대음악에 관련된 교육과정들을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재즈, 팝 등의 분야에서 ‘앙상블’ 수업이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앙상블 수업은 자신의 파트 외에 그 곡의 다른 파트를 포함한 음악의 전반적인 특징과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가며 화합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는다. 이는 앙상블 교육을 통하여 여러 음악들을 함께 다루어 가치 있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두 학교가 집중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양음악뿐만 아니라 서양음악을 뛰어넘는 모든 분야의 음악을 실용음악이라는 전공 아래에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실용음악과의 교육과정에서는 음악학과에 비하여 편곡, 레코딩과 프로덕션 등의 비중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실용음악 교육과정은 19C 말부터 현대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선사한 음악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음악어법(idiom)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록, 힙합, 알앤비, EDM, 그리고 각종 퓨전 장르를 포괄한 광범위한 영역의 음악을 다루고 있다.

3. 논의

고찰한 바대로 음악대학 커리큘럼과 실용음악과의 커리큘럼은 지향하는 바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악대학 커리큘럼은 서양음악사 중 공통관습시대의 음악 문법에 크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론과 실기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편곡이나 제작, 레코딩, 또는 컴퓨터 음악의 비중은 거의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용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은 재즈에 기초한 화성학이 강조되며, 앙상블, 편곡, 프로덕션, 레코딩, 영상음악 등 현대의 음악 창작과 응용과정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10].

음악대학과 실용음악과에서 모두 시창, 청음, 이론, 실기를 아우르는 유기적인 역량을 강조한다는 것은 공통적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음악대학 커리큘럼의 뿌리는 서양음악 중에서도 고전시대 음악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용음악과 커리큘럼은 재즈 음악을 바탕

으로 하여 팝, 록, 퓨전, 댄스, 라틴, 일렉트로니카 등 광범위한 장르의 음악을 포괄하고 있다. 음악대학의 앙상블은 크게 오케스트라와 실내악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용음악과의 앙상블은 장르에 따라 재즈, 라틴, 팝-록, 알앤비, 퓨전 등으로 나뉘며, 앙상블에서 다루는 레퍼토리에 있어서는 매우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11,12].

즉, 클래식에 기반을 둔 음악대학과 실용음악과는 모두 음악을 다룬다는 점과, 시창과 청음, 이론과 실기라는 주된 뼈대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학과의 전문성을 더욱 특성화시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악대학과 실용음악과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현재 음악창작현황과 소비분야에서 가장 유력하고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음악 양태는 클래식 음악이 아니다. 일단 국내의 음악 소비 계층이 선호하는 음악 주류는 국내가요가 92.7%로 압도적이다. 소비 장르의 구성으로는 클래식 음악이 13.2%만으로 구성되어 있다[6].

이러한 현상에 따라 실용음악과가 개설되어 대중음악의 문법도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음악대학이라는 명칭은 클래식 음악을 다루는 곳으로 익숙해져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용음악의 영역은 클래식 음악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이 음악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며 실용음악은 이 하위요소로 인식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인식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야기한다. 이를테면, 음악대학에 비해 실용음악대학에는 교직과정이 개설되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초중고의 음악 교사들은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경우가 많다. 실용음악 전공생은 입시 및 대학에서의 시창, 청음, 이론, 실기 교육을 거치며 전문적인 음악 실력을 배양하였음에도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존재한다.

김서경[7]은 “학교현장에서의 음악수업은 클래식 어법 중심으로 지도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고, 최은식과 신지혜[8]의 연구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 예술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즈 및 실용음악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지훈과 조태선[9]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이수하기 위한 교육대

학원에도 실용음악 및 대중음악 관련 커리큘럼은 전무하다고 밝히면서, 똑같이 음악을 전공하면서도 음악 교사자격증을 받기 불리하게 되어있다고 언급하였다. 심지어 K-pop을 비롯한 실용음악계열 예술고등학교의 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교사가 되기 어렵고, 또 반대로 클래식 일변도의 전공수업 이수자가 실용음악계열 학생의 현실적 음악 지도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13].

오늘날 실제 음악의 창작, 소비 현황과는 다르게 국내 음악교육 제도권 안에서의 교육적 대상, 혹은 학술대상으로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르는 클래식 음악 또는 클래식 음악의 기보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한 현대 순수음악 장르들로 채워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교육기관 외에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창작 실제적 현황들을 보면 오히려 재즈 음악 어법과 이에 파생된 양식들로 이루어져 있다.

재즈 음악학은 단지 특정 시대의 장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이후에 서양음악에서 가장 획기적인 전회를 이룬 협화음과 불협화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폐지한 텐션(tension) 개념, 변칙적이고 확장적인 코드 보이스와 그에 파생된 화성 프로그래션, 비화성음이나 리듬감을 중시하는 성향, 연주자의 개성 및 메시지를 강조하는 즉흥적 성향, 탈(脫) 오케스트라 중심의 악기편성, 리듬악기의 확대적인 증폭 등 재즈의 확장성은 현대 대중음악의 맥을 이룬다. 전자 음향의 응용, 록, 알앤비, 힙합, 발라드 등등의 세부 음악 스타일 등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음악의 핵심에 재즈가 있다. 심지어 응용 예술이나 융·복합적 장르 결합 등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며, 진지하고 학구적인 순수 장르 예술 전반에도 지배적인 음악 어법을 구축하고 있다. 오늘날 보컬과 댄스 분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반적 대중음악 뿐 아니라, 심지어 어린이음악 콘텐츠마저도 재즈 화성 및 멜로디의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다. 하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창작 국악, 퓨전국악, 그리고 크로스오버와 같은 퓨전 장르들 또한 재즈가 지니고 있는 그 특유의 확장성, 자유성들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재즈에 기반을 둔 실용음악에 대한 전문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실용음악의 어법에 대한 더욱 깊이있는 학문적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클래식 음악이 음악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며 실용음악은 그 하위에 있는 것과 같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본고와 같은 학술적인 고찰로 시작하여 실제적인 제도의 변화로 이어

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현행 음악창작 기반이 재즈, 혹은 재즈학적 요소의 영향권 아래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현행 융·통합 적,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정책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 볼 때, 현재 음악대학과 실용음악과 사이의 존재적 모호성을 걷어 내야만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2021 Bachelor's Curriculum, pp.112.
<https://www.snu.ac.kr/academics/undergraduate/curriculum>
- [2]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2021 Bachelor's Curriculum, pp.236~238
https://curriculum.kangwon.ac.kr/bbs/board.php?bo_table=sub2
- [3] Busan National University, The 2021 Bachelor's Curriculum, <https://e-onestop.pusan.ac.kr/menu/curriculum/B03/B03002?menuId=2000020302&rMenu=02>
- [4]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2021 Contemporary Music Curriculum, <https://www.sungshin.ac.kr/ctpmusic/17847/subview.do>
- [5] Chungwoon University, The 2021 Contemporary Music Curriculum, <https://music.chungwoon.ac.kr/music/contents.do?key=3392>
- [6]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KCCA) Policy headquarters, 2017 Music industry White paper, 2018. KCCA, Korea, p.194.
<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46/1835647.do?menuNo>
- [7] S. K. Kim, "A Teaching Method on Applied Music Idiom for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The Journal of Music Application Studies, Vol.9, pp.19-57, Dec. 2017.
- [8] E. S. Choi, J. H. Shin,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Music Curriculums of Arts High School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Vol.43, No.4, pp.141-161, Nov. 2014.
- [9] J. H. Cho, T. S. Cho, "For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A Study on the Need for Practical Music Teacher Cer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5, pp.180-187, May.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5.180>
- [10] B.G. Park, T.S. Cho A Study on Jamaican music Used in Moombat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1, vol.19, no.6, pp. 273-280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21.19.6.273>

- [11] H.S.Han, T.S. Cho Analysis of the use of tuplet by drummer Anika Nill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1, vol.19, no.7, pp. 245-251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21.19.7.245>
- [12] K.J. Kim, T.S. Cho A Study on Creativity in the Funk Drumming: Focused on David Garibaldi,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21, vol.19, no.9, pp. 217-228
DOI : <http://dx.doi.org/10.14400/JDC.2021.19.9.217>
- [13] S.H. Cho.(2018). A Suggestion and policy for a field of popular music- Based on necessity and establishment of academy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77-83.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1.337>

김 현 민(Hyun-Min Kim)

[종신회원]



- 2008년 3월 ~ 현재 : 안테나뮤직 소속그룹 ‘페퍼톤스’ 객원가수
- 2014년 9월 ~ 2018년 12월 : 명지전문대학 실용음악과 강사
- 2017년 9월 : 대한민국 실용음악 페스티벌 최우수 지도교수상
- 202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공연 예술대학원 (음악학 석사)
- 2021년 2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 2021년 3월 ~ 현재 :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강사

〈관심분야〉

K-pop, Vocal, Music Education, Music Business